



정읍시 범 농협, 산불 피해 성금 1000만원 전달

정읍시 범 농협은 지난 10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성금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드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탁은 정읍농협을 비롯해 쌀쌀농협, 태안농협, 황토현농협, 칠보농협, 신태안농협, 정읍원예농협, 순정축협, NH농협 정읍시지부, 농신보정읍권역보증센터,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와 정읍시청출장소,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등 범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모여 이웃을 향한 큰 응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범 농협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화재로 깊은 상실감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도통동, 장가네간장게장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등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김희민)는 지난 11일, 1일 1기구 소통행정을 통해 빌려온 ‘장가네간장게장(대표 한상화)’에 착한가게 37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월 3만원 이상)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한상화 대표는 “착한가게 지정에 힘입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나눔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적상면 초리새마을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무주군 적상면 초리새마을회가 11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병수 이장은 “겨울이면 초리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개최하고 있는 무주꽁꽁들이축제가 7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다”라며 “보답하기 위해 축제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게 됐다”라고 밝혔다.

무주꽁꽁들이축제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12월 초리마을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방통협회 임직원들, 무주군에 성금 500만원 기탁

대한방통협회 회원들이 11일 무주군에 산불 피해 주민들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돋는 데 써 달리며 성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용철 회장은 “산불로 인한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을 아름다운 무주의 산을 다시 푸르게, 놀란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데 써달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대한방통협회는 건축 내부공사 등의 일을 하는 곳으로 총 37명의 회원들이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헤아리는 데 늘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도움이 되길”

윤신근 박사, 임실군에 오수개 세계화 발전 기금 1억원 기탁

윤신근 박사는 임실군을 방문해 오수개 세계화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신근 박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북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윤신근 애견종합병원 원장 및 서울대학교 외과 교수로 역임했다.

세계애견대백과, 개를 무서워하는 수의사, 위리의 명명이야기 등 저서를 폐내며 한국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1990년 오수개 청년회의회(JC) 심재석 회장과의 기부합해 다음 해 오수개 연구위원회를 결성, 이전까지 오수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각기 다른 형태의 의료 운 오수개 조형물을 현재 원동신동원의 의견상 형태로 조형물을 모두 교체하여 통일시켰다.

이어, 오수개 유전공학 육종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위원회으로서 15년 동안이나 연구를 주도한 결과로 2008년 오수개 연구 학술대회를 통해 오수개를 세계상으로 선포했다.

오수개는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축유전자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지역 적응 품종으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UN FAO(식량농업기구) 가축다양성정보



시스템(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에 오수개/대한민국(개)(Osugae/Republic of Korea(Dog))로 품종이 등재됐다.

임실군은 197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잘 알려진 주인을 살린 의료용 개의 고장인 오수 지역에 의견 관광지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세계명견 테마랜드를 18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공공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오수펫주 모공원을 운영 중이며 반려동물 지원센터(오수반려누리), 반려동물 동반 기능 캠핑장 등 시설을 구축 완료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군, 고령 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교육 실시

무주군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마인드 함양과 실천을 독려하고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어르신 운전 중’ 표시 스티커를 제작했으며 이를 지난 9일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운전 면허 교육” 중에 배부했다.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는 부차 차량의 운전자가 고령자임을 주변 차량에 알려 상호 조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 제작한 것으로 차량 후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눈에 잘 띠는 색상과 디자인을 더해 운전자 및 보행자 인식을 높였다.

운전자들은 “맞춤형 교육이다 보니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좋더라”며 “오늘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잘못된 운전 습관은 고치고 교통안전 실천을 생활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맞춤형으로 제작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를 마음에도 새겨서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는 운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의명의 기부자, 남원 노암동에 동전 기탁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전이 가득 담긴 비닐봉투에 한 익명의 시민이 “힘들고 필요할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본인

이 치즈치즈 모이은 동전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해당 동전은 500원, 100원으로 각각 분류되어 비닐봉투 안에 한가득 담겨있었으며 총액은 약 13만원 가량으로,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를 보여준 기부자의 선 행과 따뜻한 마음이 노암동에 피어나 잔잔한 물결을 주고 있다.

차미자 노암동장은 “무거운 동전이 든 비닐봉투 보다 그 안에 담긴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며, 훈훈한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트로트 가수 김덕건, 3년 연속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

장수군은 트로트 가수 김덕건씨가 지난 10일 장수군청에 직접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덕건씨는 전북 진안군 출생으로 2019년 싱글앨범 ‘돌아와 줘’로 데뷔했으며 ‘강천산 도리지’ 등의 앨범을 내며 트로트 가수로 활약하고 있다.

김 씨는 장수군의 다양한 행사에 초청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평소에도 무료 봉사와 재능기부를 실천해왔다. 특히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3년 연속 100만원을 꾸준히 기탁해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이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덕건 씨는 “공연을 통해 자주 찾은 장수는 제2의 고향처럼 애정이 많은 곳”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고 앞으로도 장수군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다양한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신진유지건설 김용일 부시장 등, 고향사랑 1천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신진유지건설 김용일 부시장과 김진원 이사가 지난 11일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각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진유지건설은 지난 1995년 설립해 토목, 건축, 주택 공사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 등을 하는 기업으로 김제시 하수관거점비 입대형민자사업(BTL) 1단계, 2단계 및 재정구간 하수관로 관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일 부시장과 김진원 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전진한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김제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매년 김제시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용일 부시장과 김진원 이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는 따뜻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정읍시, 안동 산불 이재민에 따뜻한 손길

정읍시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에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며 따뜻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시는 안동시 산불로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을 위해 응급구호세트 100개와 취시구호세트 10개를 현장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물품은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품목들로 구상돼 갑작스러운 재난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응급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은 “재난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연대의 손길”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인철 소상공인 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방식은 다양화되며, 우리는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정치를 선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호 활동은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상호협력의



종교성을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읍시와 안동시 간의 상호 연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오식 명일 대표, 진안군에 쌀 500kg 나눔 실천

주명일 김오식 대표는 “우리 정읍 소성면 금동마을도 얼마 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기에 안동의 상황이 결코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준비한 작은 정성이 이재민들께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구호 활동은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상호협력의



김제시 새만금경제국,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 경제 중심 축을 이끄는 새만금경제국이 지난 11일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날 새만금경제국 김용현 국장은 비롯한 부서장 등 11명은 최근 천사무료급식소 김제지점을 찾아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렁탕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은 단순한 자원봉사 참여를 넘어,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국장과 부서장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에 나서 설렁탕과 반찬을 정성껏 담아내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식사를 전달했다.

김 국장은 “도시개발과 경제 인프라와 확충면밀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